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 하나님의 나라 뜻대 가늠하기      성경:역대하  
15장 1-9절

1 하나님의 영이 오돏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2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 되었으나

4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5 그 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 이라

7 그러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8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돏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9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대하15:1-9)

6월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5월은 가정의 달.)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보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특별하게 보실 수 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셨고 오늘날은 한국을 그렇게 보신다.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방치하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다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신다. 누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라의 주인이시다. 통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통치하시는 방법이 엄격하시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이고 분명한 계시를 통해서 통치에 개입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게 통치하신다.

2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들과 다른 더 나은 복을 누리 고, 보람있고, 목적 의식이 있는 인생이나 복지국가(선진국가)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러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 주신다.

-통치자시나, 보통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가시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방치하신다. 다시 찾으면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4 그들이 그 환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다른 민족이야 당연하지 않겠는가? (돌 감람나무 이야기. 롬11)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롬11:22)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같은 은혜를 주신다.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 행운의 나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지 말지니,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7 그러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하면 정말 상급이 있다. 얼마나 잘하느냐는 각자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상급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물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그 차이는 극복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그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믿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을 더 철저히 찾으며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강해야 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다.

-하나님은 특히 이 세대에 한국을 들어 사용하며,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

1.한국인의 심성은 매우 영적이며 매력적이다. 그 정신력은 참으로 뛰어나다. 그러나 그 때문에 교만하기 쉽고, 정신력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

-한국인은 뛰어난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을 하는 듯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창조적인 힘을 발휘한다.

2. 한국인은 희생정신이 뛰어나다. 동정심도 많다. 그래서 인정이 많고 정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한다. 정 때문에 쉽게 관계도 끊지 못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더 끈끈하게 연결이 되며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진달래 꽃)

-반면에 정 때문에 죄악이나 비리를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 마귀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사기를 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선한일을 해야 악이 확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소극적인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죄가 된다. 그는 적극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이지 않은 죄가 있다. 적극적이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자를 돕기라도 하라.(교회 봉사가 한 방편이 된다.)

3. 한국인은 부지런하다. 뭐든지 열심히 한다. 놀기도 잘한다. 문제는 놀기만 잘하는 부작용도 생긴다는 점이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창세기 성경공부    말씀: 창세기 22장1-19절